

“당신의 내일을 보여드립니다.”

신보슬 (큐레이터, 토탈미술관)

내일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위에 놓인 하나의 순간 혹은 계기가 아니라,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바람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내일에는 과거와 현재가 늘 같이 있다. 원성원의 <Tomorrow> 시리즈 역시 그저 '오늘의 다음날'이라는 순차적인 시간의 계기로서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의 흔적, 그리고 켜켜이 쌓여진 어제와 오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일이다. 원성원의 <Tomorrow>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사진적 판타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친구들과 혹은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업의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소망들도 알게 된다. 유명한 셀러브리티나 영웅이 아닌, 그의 곁에서 함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작업의 중요 포인트이다. 예를 들어 <Tomorrow-종로구 쌍백리의 이야기>는 공부하기 위해 시골을 뛰쳐나갔으나,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원성원의 시아버지의 실제 이야기,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하나 뿐인 아들을 유학 보냈으나, 그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낙심하여 술을 마시고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이야기이다. 그런가 하면 <Tomorrow- Village of dogs>는 아버지가 집 뒤뜰에 키우셨던 유기견들을 보며 작품의 소재를 얻었다. 버려진 강아지들을 보면서 비록 사진 콜라주라는 제한적인 방식에서 이긴 하지만, 그 강아지들에게 사람들의 간섭이 전혀 없는 강아지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한다. 일단 작품의 주제가 결정되고 나면, 원성원은 적합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 찾아 다닌다.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이미지를 구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작업방식으로 인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비록 그의 새 작업을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원성원은 이런 (고지식한) 방식이 친구들의 미래를 실현시키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원성원이 시각적으로 풀어낸 사소한 이야기에 그렇게 빠져들고, 작품을 통해서 그를 친구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는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의 작업태도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들의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의 이런 태도 때문에, 그의 작업을 볼 때마다 시원하게 웃으며 토미와 아니카를 도와주던 말괄량이 뽀뽀가 떠오른다.